

예산안 처리 공방 속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공감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부분 합의

새누리 “12월 2일 데드라인 맞춰 전력질주”
 새정치 “법인세 정상화가 최소한의 카드”
 정의장 “예산안 처리 법적 시한 지켜달라”

예산 처리 시한을 여드레 남겨놓은 24일 여야는 법정기일 준수와 협상 내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은 법정 기일 준수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협상 불가 방침까지 선언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과 법인세를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카드를 제시하면서 새누리당의 단독처리 강행 움직임에 미리 제동을 거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적시한을 지키는 게 국민과 약속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발점”이라며 “12월2일 데드라인에 맞춰 전력질주 해 여당은 물론 야당 모두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구 원내대표도 “예산안의 법적 처리를 놓고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관련법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 하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의 예산 기조와 관련, “법인세 정상화와 누리과정 예산 합의의 준수를 양대 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담배값 인상 등 각종 예산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교해 갑병 월회가 서민중세 논의의 선결조건”이라면서 “대통령 관심 사업인 새마을사업 등 남부성 예산을 삭감하면 민생살리기 예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야 대치 상황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안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올해 증액분 중 일정 부분을 지방교육청의 다른 분야 예산을 통해 ‘우회지원’하는 방안이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5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기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 소요 예산에 대해 추가로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 여당이 제안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오늘 논의에 대해) 통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여당에서 여러 양보를 할 경우 12월2일 (예산안 처리한다)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 접근을 이뤘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에서 야당이 5600억원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원액 규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낼 경우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정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및 부수법이 계류중인 해당 상임위원장과 연세 회동을 하고 다음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화 국회의장(왼쪽부터)이 24일 국회 의정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시장 “관성에 의해 달리는 광주 미래기관차...세워놓고 점검해볼 때”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배경 설명...역점 사업 더딘 행정 질타도

윤장현 광주시장(사진)은 24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행사나 공사 중심의 행정 순위를 다시 점검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2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광주 공동체가 어떻게 전개될지, 후손에게 어떤 광주를 남겨줄지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5년전, 10년 전 경기가 활성화할 때 계획됐거나 추진됐던 대규모 공사, 행사 등이 이대로 가도 광주

는 진정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또 “대규모 국제행사에는 유치위원회와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역을 먹여 살려야 할 중요한 일에는 추진위조차 구성돼 있지 않았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광주자동차산업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검토하게 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며 “관성에 의해 달리고 있는 광주 미래 기관차를 한번쯤 세워놓고 점검해야 할 시기도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검토하게 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며 “관성에 의해 달리고 있는 광주 미래 기관차를 한번쯤 세워놓고 점검해야 할 시기도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민선 6기 역점 사업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윤 시장은 “중과과 친해지기 프로젝트”를 한 예로 들면서 “정율성 선

광주시의원 12명 “재정 문제 없어...도시철도 2호선 계획대로 추진해야”

과반 의원 첫 공식입장 내...“건설 중단면 시민뜻 물어 행동 나설 것”

광주시의회 조영표 의장 등 12명은 2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 2호선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의원 22명 중 건설 찬성에 서명한 의원은 12명으로, 대의기관인 시의회 과반의 의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철도는 이윤 추구나 아닌 시민 교통복지차원에서 건설·운영되는 공공재”며 “시 논리대로 해도 2300억원에 달하는 편익은 뒷전인 채 수익성만 따진다면 윤장현 시장은 스스로 시민시장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시 중기재정계획을 봐도 재정 상황에 문제가 없다. 시는 부족재원을 부풀려 시민과 시의회를 겁박하고 기망하고 있다”며 “윤 시장은 2호선 건설 공약사항을 이행,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설 포기로 국비 지원액 1조2000억원이 사라진다면 윤 시장은 이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2호선 건설이 중단되거나 연기된다면 시민의 뜻을 물어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참여한 의원들 외에 4~5명은 조건부 찬성이거나 찬성이지만 성명서 발표에 반대한 의원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광주시의원 전체 22명 중 조영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중·김동찬·심철의·박춘수·주경남·문태환·유정심·이은방·이정현·김용집·김옥자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민중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 광주시의원 12명이 24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09:00~20:00(연중무휴)

상당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062)464-8000
리치투어 062)431-0102
가림여행사 수원점 062)955-523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무안출발 **방콕 전세기 취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출발일 1/1(목), 1/5(월), 1/9(금), 1/13(화), 1/17(토), 1/21(수), 1/25(일), 1/29(목)

AAPF01-0K1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014,800원~
한자리볼 > 가이드+기사량비 \$30
선택관광 있음

호텔: 콘콕 호텔 투숙
특징: 계절가이드, 윤종 1명 제공
비행: 서울-방콕, 방콕-파타야, 파타야-방콕
그랜드 호텔 선상선사 카루즈

AAPF01-0K2
[369 프로모션]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314,800원~
한자리볼 > 가이드+기사량비 \$30
선택관광 있음

호텔: 콘콕 호텔 투숙
특징: 계절가이드, 윤종 1명 제공
비행: 서울-방콕, 방콕-파타야, 파타야-방콕
그랜드 호텔 선상선사 카루즈

AAPF01-0XA
[홍도]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464,800원~
한자리볼 > 가이드+기사량비 포함
선택관광 있음

호텔: 콘콕 호텔 투숙
특징: 전통아미 2인/1인, 밤사자 1인
특기: 2기차에, 한양 호텔 투숙, 비하인드 스토리 투어

AAGF01-0K1
[369+관광]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453,900원~
한자리볼 > 가이드+기사량비 \$30
선택관광 있음

호텔: 콘콕 호텔 투숙
특징: 전통아미 2인/1인, 밤사자 2인
특기: 일사방, 한양 호텔 투숙

지역별 추천 허니문 상품

하와이 데려온

HHN200-02C/NEE
오아후 9일
레리온 와이키키

총 상품가격 2,679,100원~
한자리볼 > 가이드+기사량 포함
선택관광 있음

출발일: 12월 - 1월/월요일
특징: 레리온 와이키키 파생오션뷰-오스트레일리아(하와이) 사내 취향 코스 대니 1회 포함, 오아후 당일 투어 포함

AAW01A-A
몰디브 6/7/8일
반딧불이 바비파루 리조트

총 상품가격 3,901,200원~
한자리볼 > 가이드+기사량비 \$20
선택관광 있음

출발일: 12월 - 1월/월요일
특징: 전석 포함, 30명 퍼트너 스포츠 레슨, 일대일과 와인행

특별한 하나투어 호주/뉴질랜드 여행

① 매주 금요일 100% 출발 ② 8명 이상부터 인슈어 동행 (단, 클래식 상품 한정)
③ 대한항공 최대 불특 확보 ④ 국내 유일 호주 & 뉴질랜드 하나투어 지사운영
⑤ 사전 예약 최대 20만원 할인 제공 (단, 클래식 상품 한정)

PAP20-0Z
[사전예약합인] 호주/뉴질랜드 북섬 8일

총 상품가격 3,353,800원~
한자리볼 > 가이드+기사량비 \$80
선택관광 있음
출발일: 매주 수요일, 일요일

호텔: 4성급 이상 호텔 (단, 트라벨 3성급 호텔)
출발: 시드니-크리스티안스버그-아일랜드-퀸스랜드-크리스티안스버그-호주-뉴질랜드

PAP21-KEP
[사전예약합인] 호주/뉴질랜드 남섬 10일

총 상품가격 4,253,800원~
한자리볼 > 가이드+기사량비 \$100
선택관광 있음
출발일: 매주 화, 목, 금, 일요일

호텔: 4성급 이상 호텔 (단, 트라벨 3성급 호텔)
출발: 시드니-크리스티안스버그-아일랜드-퀸스랜드-크리스티안스버그-호주-뉴질랜드

■ 여행상품 가격 포함액: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통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세/숙박세,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이드에게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될 시 현지 가이드를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호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관광: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호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상황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중호루칭) 서울시 중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별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콜센터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